

#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른 아동의 자기-유능감 차이에 관한 연구

- 조건모델에 근거하여 -

Differences of Child's Self-Competence by Temperament and  
Mother's Nurturing Behavior :  
- The Conditional Model -

최영희(Young-Hee Choi)<sup>1)</sup>

## ABSTRACT

Factor analysis of data collected from 336 elementary school children provided difficultness and susceptibility as the temperament factors, and affect and control as the nurturing factors. Results showed that non-susceptible children with low controlling mother perceived their cognitive competence positively while highly susceptible children showed no differences in their self-competence by mothers' controlling behavior. Perceived cognitive competence of susceptible boys and of susceptible 3rd graders were low when their mothers asserted low control. Thus, mothers' controlling behavior supported perceived cognitive competence in highly susceptible boys and 3rd graders. That is, the effect of mother's behavior on child's self-competence was moderated by child's characteristics. These results partially supported the Conditional Model.

**Key Words** : 아동의 기질(child's temperament), 양육행동(nurturing behavior), 자기-유능감(self-competence), 조건모델(Conditional Model).

## I. 서 론

기질 연구가 활발하게 된 것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양육의 영향을 강조해왔던 관점에서 아동 자신의 특성이 많은 부분 기여한다는 관점이

대두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발달을 예측한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태도가 아동의 친사회적 능력(Sroufe, 1985)이나 적응(Collins, Maccoby, Steinberg, Hetherington, & Bornstein,

<sup>1)</sup> 수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복지학과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Young-Hee Choi,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The University of Suwon, Hwasung 445-743, Korea E-mail : heechoi@suwon.ac.kr

2000; Vandell, 2000)과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적응을 보통 정도로 예언할 뿐 아니라 양육 유형과 적응과의 관계는 애매하기까지 하다. 예를 들어 부모의 높은 권력행사가 어떤 아동에게는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행동과 관계되는가 하면 어떤 아동에게는 공격적인 행동과 관계된다(Maccoby, 1980).

아동의 발달에 기질이 기여한다는 연구들은 극단적으로 긍정적인 기질이나 부정적인 기질 특성은 긍정적 발달로 이어지거나 병리를 발달시킨다고 보았다(Rothbart & Bates, 1998). 아동의 기질이 아동의 정서인식과 정서조절(김준희, 1997), 조망수용(양은실, 2002), 자기-규제에서의 주의집중(González, Fuentes, Carranza, & Estévez, 2001)과 관련된다고 보고한 연구들은 아동의 기질이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계됨을 밝히고 있으나 아동의 기질과 발달과의 관계는 보통 정도로 높지 않았다(Bates, 1989).

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은 아동의 기질 자체가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발달에 영향을 주는 양육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발달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아동의 기질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이 변화하고 그 변화된 양육행동은 다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주므로, 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행동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적 관점(Windle & Lerner, 1986)을 내포하고 있다. 부정적 정서가 높은 영아는 외향성이 높은 어머니에게 권력행사를 많이 사용하게 하였고(Clark, Kochanska, & Ready, 2000)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은 어머니에게 부정적이고 통제적 양육행동을 보이도록 하며, 이러

한 부모의 통제적 태도는 다시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을 강화시키고 문제행동을 발전시킨다(최연희, 2000; 최영희, 1990; Lee & Bates, 1985). 까다로운 기질 아동이 문제행동을 발달시키는 경향이 높으나 이는 아동의 기질이 곧 문제행동으로 발전되는 것이라거나 부모의 부정적이고 통제적 양육이 문제행동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기보다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이 부모의 부정적 양육을 매개로 하여 문제행동으로 발전된다. 6세에 까다로운 기질을 보였던 아동은 15세에 우울 경향이 높았는데, 이는 9세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매개로 하여 관련이 있었다(Katainen, Rääkkönen, Keskivaara, & Keltikangas-Järvinen, 1998).

그러나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이 언제나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과 관련되지는 않을 것이다. 까다로운 아동이라 할지라도 아동의 기질 특성이 어머니의 기대와 요구를 만족시킨다면 어머니는 부정적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아동은 문제행동을 발전시키지 않을 것이다. 아동의 기질이 부모의 기대와 조화를 이루면 긍정적 양육과 긍정적 발달이 이루어질 것이며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부정적 상호작용이 있게 되고 부모와 자녀의 부정적 상호작용은 아동의 부정적 발달을 낳을 것이다. Thomas와 Chess(1977)는 이를 조화로운 합치(Goodness-of-Fit) 모델로 설정하였다. 개인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면 긍정적 상호작용과 긍정적 발달이 있게 될 것이라는 조화로운 합치 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몇몇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나 결과는 만족할 만하지 못하였다(Lerner, Lerner, & Zabski, 1985). 기질과 부모의 기대가 조화되는 정도보다 기질이 직접 아동의 심리 사회적 발달과 상관있었다(김정민·윤진, 1992; 최영희, 1994; Buss & Plomin,

1984; Windle, Hooker, Lenez, East, Lerner, & Lerner, 1986). 이는 부모가 기대하고 만족해하는 아동의 기질에 부모들 간 차이가 거의 없었으므로 까다로운 아동은 대부분 부모와 조화되는 정도가 낮았으며 순한 기질 아동은 조화 정도가 높았기 때문이었다. 즉, 조화되는 정도는 곧 아동의 기질 정도라고 할 수 있었으므로 조화도와 발달과의 관계는 곧 기질특성과 발달과의 관계와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시점에서 McClowry(2002)는 기질 유형별로 조화되는 양육행동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기질을 유형화하는 시도를 하였다. 그는 16가지 기질 유형을 보고하였으나 유형별로 어떠한 양육이 조화를 이루는가는 아직 연구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미애(1995)는 아동의 기질을 까다로움, 변화에 대한 부적응, 멈추기 어려움, 의존성, 불규칙성, 그리고 기분의 저조함의 6가지 기질군으로 나누고 각 기질 특성군과 조화를 이루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발견하려 하였다. 대부분의 기질군에서 어머니의 수용적이고 애정적인 태도가 적은 문제행동과 상관이 있는 조화로운 양육태도였으며, 불규칙성 기질의 경우에는 단호한 훈육방식이 조화로운 양육태도였다. 이처럼 조화로운 합치 모델은 개념적으로 타당하므로 이를 경험적으로 증명하려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으나 연구 방법의 한계(Buss & Plomin, 1984)로 인해 일반화될 수 있는 동의된 연구결과가 충분히 누적되지 못한 상태에서 기질 유형별로 기질과 조화되는 양육태도를 찾으려는 시도(이미애, 1995; McClowry, 2002)가 있었으나 일반화되기 어려운 기질 유형 분류로 인해 추후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질과 양육행동이 상호

작용하여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으므로 기질, 양육행동, 그리고 아동의 적응과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어 왔다. 여기에서 양육행동을 단순한 환경으로 보기 보다는 아동의 특성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으로 보고 그 둘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 Gallagher(2002)는 조건모델(Conditional Model)을 제안하였다. 조건모델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아동의 기질이 중재 또는 조절 변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조건모델은 독립변인(양육행동)이 종속변인(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조건(기질)에 따라 다르다는 가정을 하고,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적응을 예측하는데 아동의 기질 특성이 조건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아동의 기질은 양육과 적응과의 관계의 정도를 조절하며 기질에 따라 양육행동이 아동의 발달에 상이한 영향을 준다(Sanson & Rothbart, 1995)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긍정적 기질을 가진 아동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거나 간에 긍정적 적응을 보이는 반면에 부정적 기질을 지닌 아동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 때는 긍정적 적응을 보이나 양육이 부정적일 때는 적응이 낮다(Bronfenbrenner & Morris, 1998). 즉, 부정적 기질 아동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아 부정적 기질 아동은 부정적 양육에 더 취약하여 부정적 발달을 보인다.

조건모델의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Belsky(1997)의 연구에서, 부정적 반응성이 높은 영아는 그렇지 않은 영아보다 부모 양육변인에 더 민감하여 부정적 기질의 영아는 부모의 양육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에 따라 적응 정도가 크게 차이 있었다. Blackson, Tarter, 그리고 Mezzich(1996)의

연구에서 까다로운 기질 아동에게서만 부모의 부정적 훈육이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과 상관이 있었다. **Colder, Lockman, 그리고 Wells (1997)**는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 남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두려움이 높은 아동의 경우에만 부모의 거친 훈육이 높은 공격성을 예측한다고 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긍정적 기질의 아동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나 부정적 기질의 아동은 부정적 양육에 취약하여 부정적 발달을 보인다는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의 기질은 부모의 양육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한다는 조건모형을 지지할 만 하였다.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이 부정적 양육이 부정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피부의 전기 반응에 민감한 두려움이 높은 아동에게서만 어머니의 부드러운 훈육이 아동의 양심발달을 예측할 수 있었다 (**Fowles & Kochanska, 2000**). 두려움이 낮은 아동에게서는 어머니의 부드러운 훈육이 양심 발달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두려움이 낮은 아동에게는 부드러운 훈육이나 거친 훈육이 아동의 양심발달과 관련이 적으나 두려움이 높은 아동에게는 부드럽지 않은 거친 훈육을 할 경우 아동의 낮은 양심을 예측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 연구 역시 부정적 양육이 부정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까다로운 기질을 보이는 아동의 경우에 더 크다는 조건모형을 지지하는 결과라 하겠다.

이처럼 부정적 특성의 아동이 부모의 부정적 양육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아 부정적 적응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들과 달리 **Bates, Pettit, Dodge, 그리고 Ridge(1998)**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통제에 반항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제한을

가하는 통제적 태도가 높을 때 외현적 문제행동을 적게 보였으나 반항하는 경향이 낮은 아동에게서는 어머니의 통제적 태도가 문제행동과 상관이 없었다. 걸음마기 때 저항하는 기질 정도를 조사하고 어머니의 제한하는 통제를 관찰하여 7~10세에 외현행동을 조사한 결과, 어머니의 제한이 낮은 경우에만 저항 특성이 외현행동과 강한 관계를 보였다. **Bates 등(1998)**의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통제적 태도가 반항하는 경향이 높은 부정적 기질의 아동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외현적 문제행동을 낮추는 것으로, 어머니의 강한 통제가 통제에 반항하는 아동의 적응을 돕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Park, Belsky, Putnam, 그리고 Crnic(1997)**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강압적인 행동이 부정적 정서를 지닌 영아의 경계하는 행동을 낮추고 있었는데 **Kagan(1997)**은 이러한 결과를 두려움이 많은 아동이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간섭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제안하며, 부정적 기질을 보이는 아동에게는 부모의 통제가 아동의 적응을 돕는다고 하였다.

부모의 통제가 아동의 적응을 돕는다는 연구결과는 **Colder 등(1997)**의 연구에서도 발견되었는데, 활동수준이 높은 아동의 경우에 반항한 부모 감시가 높은 공격성과 관련되었다. 활동수준이 높은 것이 까다로운 기질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아동의 낮은 활동성이 부모의 애정적 태도와 상관이 있으며(**Buss & Plomin, 1974; 최영희, 1993**) 아동의 높은 활동수준은 부정적 정서를 지닌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므로 (**최영희, 1997**) 아동의 높은 활동수준은 부모에게 돌보기 어려운 특성인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의 높은 활동수준과 부모의 낮은 감

시가 공격성과 상관있었음은 부모의 통제가 공격성을 낮추어 적응을 돕는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애(1995)의 연구에서도 불규칙성 기질의 경우에 단호한 훈육방식이 낮은 문제행동과 관련되었다. 이들 연구들은 부모의 통제나 간섭이 부정적 기질을 지닌 아동의 적응을 돕는다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조건모형을 지지하고 있는 연구들은 상치된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는데 부모의 부정적 양육이 순한 기질의 아동에게보다 까다로운 기질을 보이는 아동에게 큰 영향을 주어 부정적 발달을 낳는다는 결과들(Belsky, 1997; Blackson 등, 1996; Bronfenbrenner & Moris, 1998; Colder 등, 1997)과, 부모의 강압적이고 통제적 양육행동이 까다로운 기질 아동의 적응을 돕는다는 결과들(Bates 등, 1998; Colder 등, 1997; Kagan, 1997; Park 등, 1997)이 보고되고 있다. 전자의 모델에서는 까다로운 특성을 보이는 아동에게 부모의 강압적 양육이 아동의 부정적 발달을 촉진한다고 보는 반면 후자의 모델에서는 부모의 강압적 양육이 까다로운 특성을 보이는 아동의 긍정적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기질이 조건이 되어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달리한다는 조건모형을 검증하면서 아동의 기질이 어떠한 조건으로 작용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아동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특성이 어떠한 조건으로 작용하는가를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의 연구문제들을 제기하였다.

첫째, 아동의 기질에 따라 아동의 자기-유능감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라 아동의 자

기-유능감은 차이가 있는가?

셋째,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상호작용에 따라 아동의 자기-유능감은 차이가 있는가?

넷째, 아동의 성별과 연령별로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상호작용에 따라 아동의 자기-유능감은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경기도 과천과 안산의 초등학교 학생 3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3학년이 134명(남아 66명, 여아 68명)이었고 6학년이 202명(남아 102명, 여아 100명)이었다. 자기 유능감은 학령기에 발달되는 중요한 적응이므로(곽형식 외 7인, 2000)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학령기 전기인 3학년과 후기인 6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 2. 측정도구

#### 1) 아동의 기질

아동의 기질은 Heggvik, McDevitt, 그리고 Carey(1982)가 8~12세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하도록 제작된 MCTQ(Middle Childhood Temperament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부모 보고로 측정하도록 제작된 9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주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6점 척도로 되어 있다. 부모가 평정하게 되어있는 것을 아동이 자신의 기질을 평정하도록 바꾸어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양호도

가 낮거나 응답이 한 쪽으로 편중된 문항들을 제외한 49문항을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MCTQ는 활동성, 규칙성, 접근성, 적응성, 반응강도, 기분, 지구성, 주의분산도, 그리고 반응역의 9 영역을 조사하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활동수준이 높고, 생활습관이 불규칙하며, 새로운 것에 접하면 위축되고, 바람직한 행동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우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정도가 강하고, 부정적 기분을 많이 나타내며, 한가지 과제를 지속하는 지구성이 낮고, 외부 자극에 의해 쉽게 주의가 산만해지며, 외부 자극에 민감한 정도가 높은 것으로 까다로운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기질 연구들이 9 기질 영역을 사용하여 분석하여 양육행동이나 아동의 발달과 관련된 기질 영역을 보고하고 있으나 연구들마다 관계되는 기질 영역에 일관성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기질 영역을 단순화하고자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성분 분석을 한 후 직교회전을 실시하여 요인들 간의 상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두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요인 부하량이 .50이 넘는 것을 선택하였다. 활동수준, 규칙성, 적응성, 기분, 그리고 지구성의 5 영역이 첫 번째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규칙성, 적응성, 기분은 Thomas 등(1968)이 까다로운 기질 분류에 사용된 기질 영역들이었으며 지구성은 학령기 아동에게 까다로움으로 지각되는 주요 영역이었고(최영희, 1997), 활동성은 까다로운 기질 분류에는 사용되지 않았으나 활동성이 높은 것이 까다로운 특성인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고 Buss와 Plomin(1974)은 활동성이 높은 것을 까다로운 특성으로 보았으므로 첫 번째 요인을 '까다로움(difficulty)'이라고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에는 반응강도, 주의분산도, 그리고 반응역의 3 영역이 속하였으며 이는 작은 외부자극에 쉽게

주의가 분산되고 정서 표현이 강한 것으로 '예민함(susceptibility)'으로 명명하였다. 요인분석에서 접근성은 요인 부하량이 두 요인 모두에서 .50을 넘지 못하였으므로 제외하였다. 까다로움과 예민함은 총 변량의 51.4%를 설명하고 있었다. 높은 점수의 의미는 까다로움이 높고 예민함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요인분석 전의 9 기질영역의 신뢰도는 .40에서 .64로 높지 않은 편이었으나 요인분석 후 요인 I인 까다로움의 신뢰도는 .82, 요인 II인 예민함의 신뢰도는 .64로 만족할 만 하였다.

## 2)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정현희(1990)가 제작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검사'를 사용하였다. 원래의 도구는 총 44문항으로 민주·자율적 행동 28문항, 온정적 행동 6문항, 기대·간섭적 행동 6문항, 그리고 불안·복종적 행동이 4문항이었다. 다른 행동에 비해 민주·자율적 행동 측정 문항이 많았으므로 민주·자율적 행동의 28문항 중 6문항을 선택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아동학 전공자 2인에게 안면타당도가 높은 문항을 선택하도록 의뢰한 후 중복되게 선택된 문항을 선정하였다. 민주·자율적 행동 이외의 문항들은 그대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민주·자율적 행동, 온정적 행동, 그리고 기대·간섭적 행동이 각 6문항씩, 불안·복종적 행동이 4문항으로 총 22문항을 질문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태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점수 체계를 두어, 높은 점수는 민주·자율적 행동이 높으며, 자녀에 대한 기대와 간섭이 높고, 자녀의 일을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자녀에게 복종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양육행동 역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단순화

하고자 하였다. 양육행동은 Schaefer의 분류와 같이 애정적 차원과 통제적 차원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요인의 수를 '2'로 지정하여 22문항을 요인분석하였다. 주성분 분석을 한 후 직교회전을 하여 요인부하량이 .40이 넘는 문항을 선택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민주·자율적 행동과 온정적 행동의 12개 문항들 중 10개 문항이 요인 I에 속하여 이를 '애정적 행동'이라 명하였고, 기대·간섭적 행동 6문항(예; '나는 자녀가 입기 싫어하는 옷도 입게 한다'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꾸짖는다') 과 민주·자율적 행동의 1개 문항(나는 자녀의 좋은 점은 보지 않고 나쁜 점만 들추어 낸다) 이 요인 II에 속하여 이를 '통제적 행동'이라고 명하였다. 불안·복종적 행동의 4 문항과 민주·자율적 행동의 1 문항은 두 요인 모두에 요인 부하량이 .40이 넘는 것이 없었으므로 제외하였다. 요인 I의 점수가 높은 것은 애정적 행동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요인 II의 점수가 높은 것은 통제적 행동과 기대·간섭적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애정적 행동과 통제적 행동은 총변량의 31.2%를 설명하고 있었다.

요인분석 전의 신뢰도는 불안·복종적 행동이 .30으로 가장 낮고 온정적 행동이 .79로 가장 높았다. 요인분석 후의 신뢰도는 애정적 행동이 .83, 통제적 행동이 .65로 만족할 만 하였다.

### 3) 아동의 자기-유능감

아동의 자기-유능감은 Harter(1982)의 자기능력지각 척도(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를 사용하였다. 인지적 능력, 사회적 능력, 신체적 능력, 그리고 일반 자아가치의 네 영역을 조사하고 있다. 각 영역마다 7문항

씩 총 28문항으로 되어 있다. 인지적 능력은 학업 성적이 좋고 교실에서의 수행에 관해 좋게 느끼는 것이며, 사회적 능력은 친구가 많고 반에서 중요한 구성원이라고 여기는 것, 신체적 능력은 운동을 잘한다고 여기는 것, 그리고 일반 자아가치는 자신감이 있고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높은 점수는 자기-유능감을 높게 지각함을 의미한다. 자기-유능감의 신뢰도는 .66에서 .77로 높은 편이었다.

## 3. 연구절차

아동의 기질측정 도구인 MCTQ는 부모가 아동의 기질을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하고자 하였으므로 도구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3학년 아동 42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양호도가 높은 49개 문항을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의 자료 수집은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 아동 336명을 대상으로 담임교사가 질문지들(기질, 어머니 양육행동, 그리고 자기-유능감 척도)을 배부하고 아동에게 응답하도록 한 후 회수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 4. 자료 분석

아동의 기질 특성의 두 요인인 까다로움과 예민함,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두 요인인 애정적 행동과 통제적 행동의 점수가 상위 33%인 집단과 하위 33%인 집단을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이 상인 집단과 하인 집단으로 나누어 t 검증과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별 사례수는 동점자들로 인해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 Ⅲ. 결과 및 해석

#### 1. 아동의 기질에 따른 아동의 자기-유능감

아동의 기질에 따라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기 위하여 기질 요인 별로 상 집단과 하 집단에 따른 t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아동의 기질에 따른 아동의 자기-유능감 차이

기질요인	자기-유능감	기질 집단	N	평균	표준 편차	t
까다로움	인지적 능력	하	110	2.78	.46	6.45**
		상	122	2.37	.51	
	사회적 능력	하	107	2.86	.54	3.50**
		상	122	2.60	.59	
	신체적 능력	하	110	2.79	.61	3.10**
		상	121	2.54	.58	
일반 자아가치	하	110	2.76	.57	5.21**	
	상	115	2.37	.57		
예민함	인지적 능력	하	82	2.54	.52	.44
		상	82	2.51	.50	
	사회적 능력	하	82	2.70	.53	.87
		상	86	2.62	.64	
	신체적 능력	하	82	2.66	.56	1.21
		상	85	2.54	.70	
	일반 자아가치	하	81	2.66	.62	2.46*
		상	85	2.43	.61	

\*p<.05 \*\*p<.01

<표 1>에서 보듯이 까다로움이 높은 아동은 까다로움이 낮은 아동보다 인지적 능력, 사회적 능력, 신체적 능력, 그리고 일반 자아가치 모두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자기의 활동수준이 높고 생활습관이 불규칙하며, 바람직한 행동으로 변화시키기가 어려우며, 부정적 기분을 많이 경험하고, 한가지 과제를 지속하는 정도가 낮다고 한 아동은 자기-유능감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유능감이 낮았다. 그에 비해 예민

함은 일반 자아가치 지각에서만 차이가 있었다. 작은 외부자극에도 쉽게 주의가 흐트러지며 정서 표현을 강하게 하는 예민함이 높은 아동이 예민함이 낮은 아동에 비해 일반 자아가치를 낮게 지각하고 있었다. 인지적 능력과 사회적 능력, 그리고 신체적 능력은 예민함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2.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른 아동의 자기-유능감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른 아동의 자기-유능감 차이를 보기 위해 어머니의 애정적 행동과 통제적 행동이 높고 낮음에 따라 아동의 자기-유능감 정도의 차이 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른 아동의 자기-유능감 차이

양육행동 요인	자기-유능감	양육행동 집단	N	평균	표준 편차	t
애정적 행동	인지적 능력	하	98	2.37	.48	-5.21**
		상	131	2.72	.52	
	사회적 능력	하	97	2.54	.60	-3.33**
		상	129	2.80	.57	
	신체적 능력	하	97	2.59	.57	-2.07*
		상	132	2.76	.64	
일반 자아가치	하	93	2.41	.60	-2.98**	
	상	133	2.65	.60		
통제적 행동	인지적 능력	상	121	2.46	.49	-2.78**
		하	128	2.65	.56	
	사회적 능력	상	119	2.62	.60	-2.07*
		하	133	2.78	.59	
	신체적 능력	상	119	2.64	.56	-.88
		하	135	2.71	.66	
일반 자아가치	상	119	2.44	.60	-2.56*	
	하	131	2.64	.63		

\*p<.05 \*\*p<.01



<표 2>와 같이 어머니가 애정적 행동을 보이는 정도가 높은 아동이 어머니의 애정적 행동이 낮은 아동보다 인지적 능력, 사회적 능력, 신체적 능력, 그리고 일반 자아가치의 모든 자기-유능감에서 높은 정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통제적 행동이 높은 집단의 아동은 통제적 행동이 낮은 집단의 아동보다 신체적 능력을 제외한 인지적 능력, 사회적 능력, 그리고 일반 자아가치에서 낮은 정도를 보이고 있었다. 즉, 어머니가 기대와 간섭과 같은 체제를 덜 한다고 아동이 지각하는 경우에 신체적 능력을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 아동의 자기-유능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3.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상호작용에 따른 아동의 자기유능감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상호작용에 따른 아동의 자기-유능감 차이를 알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의 까다로움 상·하 집단과 어머니의 애정적 행동 상·하 집단, 까다로움 상·하 집단과 통제적 행동 상·하 집단 등으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상호작용을 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의 결과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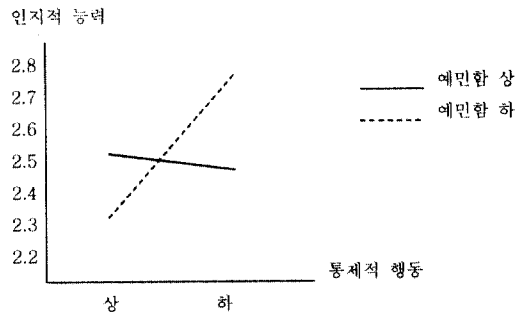
<표 3>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상호작용에 따른 아동의 인지능력지각

자기-유능감	기질과 양육행동	제III유형 제공함	자유도	평균제곱	F
	예민함	2.5E-02	1	2.5E-02	.10
인지적 능력	통제적 행동	1.33	1	1.33	5.30*
	예민함× 통제적 행동	1.81	1	1.81	7.19**

\*p<.05 \*\*p<.01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과 같이 아동의 인지적 능력 지각에서 어머니의 통제적 행동의 주효과와 아동의 예민한 기질과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의 상호작용 효과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의 내용을 그래프로 표시하여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 아동의 예민함과 어머니의 통제적 행동의 상호작용

<그림 1>에서와 같이 예민함이 높은 아동은 어머니의 통제적 행동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으나 예민함이 낮은 아동은 어머니의 통제적 행동이 높을 때 인지능력 지각이 낮게 나타났다. 예민함이 낮은 아동은 어머니의 통제적 행동이 낮은 경우에 인지적 능력 지각이 높았으나 예민함이 높은 아동은 어머니의 통제적 행동의 정도에 따라 인지적 능력 지각에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약간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 4. 아동의 성별과 연령별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행동에 따른 아동의 자기-유능감

아동의 성별, 학년별로 어떠한 형태의 상호작용이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고자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여 <표 4>에, 학년에 따른

〈표 4〉 성별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상호작용에 따른 아동의 인지능력지각

성 별	자기-유능감	기질과 양육행동	제III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남 아	인지적 능력	예민함	.53	1	.53	2.26
		통제적 행동	.17	1	.17	.72
		예민함 × 통제적 행동	1.16	1	1.16	4.96*
여 아	인지적 능력	예민함	8.33E-02	1	8.33E-02	.32
		통제적 행동	1.10	1	1.10	4.25*
		예민함 × 통제적 행동	1.04	1	1.04	4.02*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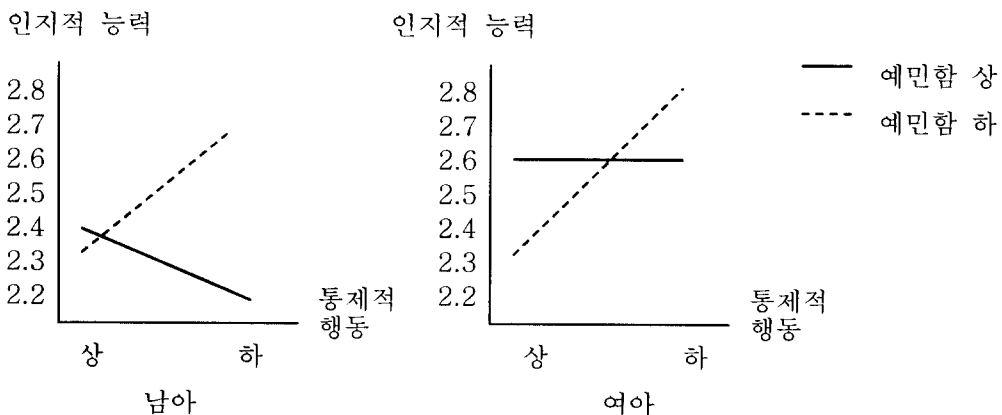
상호작용 효과를 <표 5>에 제시하였으며 각각의 상호작용 효과의 내용을 <그림 2>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표 4>에서 보듯이 남아와 여아의 경우 모두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으나 여아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통제적 행동에 따른 주효과도 발견되었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서와 같이 예민한 여아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통제적 행동 정도에 따라 인지적 능력 지각에 차이가 없는데 비해 예민한 남아는 어머니의 통제적 행동이 낮을 때 인지적 능력을 낮

게 지각하고 있었다. 즉, 어머니가 통제를 많이 한다고 지각하는 예민한 남아는 인지적 능력을 높게 지각하며 어머니의 통제가 낮다고 지각하는 예민한 남아는 인지적 능력을 낮게 지각함을 알 수 있다. 예민한 여아에 비해 예민한 남아는 어머니의 통제행동에 따라 인지적 능력 지각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예민함이 낮은 경우에는 남아와 여아 모두 어머니의 통제적 행동이 낮을 때 인지적 능력지각이 높았다.

다음으로 아동의 학년별로 아동의 예민함과 어머니의 통제적 행동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면 <표 5> 및 <그림 3>과 같다.



〈그림 2〉 아동의 성별 예민함과 어머니의 통제적 행동의 상호작용

<표 5> 학년별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상호작용에 따른 아동의 인지능력지각

학 년	자기-유능감	기질과 양육행동	제III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3	인지적 능력	예민함	.80	1	.80	2.60
		통제적 행동	8.18E-02	1	8.18E-02	.27
		예민함 × 통제적 행동	1.15	1	1.15	3.76*
6	인지적 능력	예민함	.23	1	.23	1.09
		통제적 행동	2.52	1	2.52	12.17**
		예민함 × 통제적 행동	1.46	1	1.46	7.03**

\*p<.05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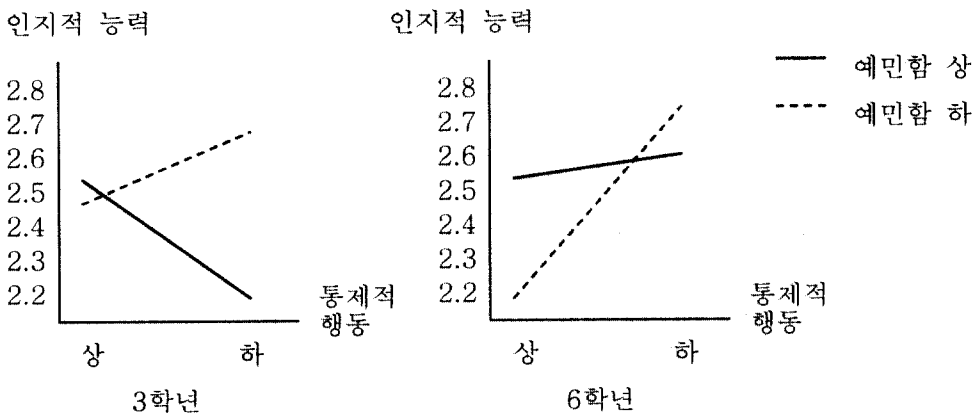
<표 5>와 같이 3학년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상호작용 효과만 보였으나 6학년 아동의 경우에는 어머니 양육행동의 주효과와 기질과 양육행동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서와 같이 3학년 아동은 어머니의 통제적 행동이 낮을 때 예민함이 높고 낮음에 따라 인지적 능력지각에 큰 차이가 있었다. 예민함이 높은 아동은 어머니의 통제적 행동이 낮을 때 인지능력 지각이 낮았고 예민함이 낮은 아동은 어머니의 통제적 행동이 낮을 때 인지능력 지각이 높았다. 그에 비해 6학년 아동

은 예민함이 높거나 낮은 아동 모두 어머니의 통제적 행동이 낮을 때 인지능력 지각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예민함이 낮은 아동의 경우에 그러하였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발달과의 관계가 아동의 기질에 의해 달라진다고 가정된 조건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와 그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까다로움이 높은 아동은 까다로움이



<그림 3> 아동의 학년별 예민함과 어머니의 통제적 행동의 상호작용

낮은 아동에 비해 인지적 능력, 사회적 능력, 신체적 능력, 그리고 일반 자아가치의 모든 자기-유능감을 낮게 지각하고 있었다. 아동의 기질과 자기능력 지각 간에는 높은 상관성이 있음은 다른 연구들(최영희, 1994; Windle 등, 1986)에서도 보고하고 있다. 아동기에는 특히 인지능력이 중요한 발달측면이라고 보고 인지 능력과 기질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들은 지구성, 주의분산도, 적응성(Martin, Nagle, & Paget, 1983)이나 규칙성, 적응성, 지구성, 주의분산도(Guerin, Gottfried, Oliver, & Thomas, 1994)가 인지능력과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이 인지능력과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한 기질 영역들 중 주의분산도를 제외한 규칙성, 적응성, 지구성은 본 연구에서 까다로움 요인에 속하는 기질 특성이었으므로 까다로움이 인지적 능력과 관계가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까다로움에 따라 자기-유능감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차이를 보인 것에 비해 아동의 예민함은 일반 자아가치 지각에서만 차이를 나타내었다. 예민함이 높은 아동은 예민함이 낮은 아동에 비해 일반 자아가치만 낮게 지각하고 있었다. Caspi와 Silva(1995)는 주의가 산만하고 성급한 기질특성을 통제력 부족이라 하고 아동의 통제력 부족이 문제행동과 관련된다고 하여, 본 연구에서 산만하고 예민한 기질특성을 지닌 아동이 일반 자아가치 지각이 낮았다는 결과와 일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어머니가 애정적 양육행동을 보인다고 지각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인지적 능력, 사회적 능력, 신체적 능력, 그리고 일반 자아가치의 모든 자기-유능감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연구들에서도 보고 되고 있는데, Richards, Gitelson, Petersen, 그리고 Hurtig(1991)은 온정·참여·

거부·통제 등을 포함하는 아홉가지 부모 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부모의 온정성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김경연(1987)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애정적 태도가 아동의 높은 자아존중감과 상관성이 있었다.

어머니의 통제적 행동과 아동의 자기-유능감과의 관계에서는 어머니가 통제를 많이 한다고 지각한 아동이 인지적 능력, 사회적 능력, 그리고 일반 자아가치 지각에서 낮은 점수를 보여 신체적 능력을 제외한 자기-유능감을 낮게 지각하고 있었다. 이는 부모의 성취 압력이 아동의 일반적 자아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고병채(1991)의 연구나 권위주의적 통제(오순환, 1991)가 자아개념과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와 같은 결과였다.

셋째,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상호작용 효과는 아동의 예민함과 어머니의 통제적 행동이 아동의 인지능력지각에 가져오는 차이에서만 발견되었다. 예민함이 낮은 아동은 어머니의 통제적 행동이 낮은 경우에 인지적 능력 지각이 크게 높았으나 예민함이 높은 아동은 어머니의 통제적 행동에 따라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약간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 기질을 지닌 아동은 부모의 양육행동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에 별 영향을 받지 않으나 부정적 기질 아동은 부모의 부정적 행동에 취약하여 부정적 발달을 보인다(Belsky, 1997; Blackson 등, 1996; Bronfenbrenner & Morris, 1998)는 조건모델과는 상충되는 결과이다. 또한 부정적 정서성의 아동에게는 부모의 강압적 태도가 아동의 적응을 도왔다(Bates 등, 1998; Colder 등, 1997; Kagan, 1997; Park 등, 1997)는 모델을 지지하지도 못하였다.

넷째, 어머니의 통제적 행동과 아동의 예민

함의 상호작용 효과를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 예민함이 낮은 아동은 성별과 학년에 관계없이 어머니의 통제적 행동이 낮을 때 인지능력 지각이 높았으나 예민함이 높은 남아와 3학년 아동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통제적 행동이 낮을 때 인지능력을 낮게 지각하고 있었다. 예민함이 높은 남아와 3학년 아동에게서 나타난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통제적 행동이 예민한 아동의 적응을 돕는다는 관점의 조건모형을 지지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통제에 반항하는 아동에게는 어머니의 통제적 태도가 외현적 문제행동을 적게 보이도록 하였다는 Bates 등(1998)의 연구, 두려움이 많은 아동에게는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돕기 위해 어머니의 간섭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Kagan(1997), 활동 수준이 높은 남아의 경우에 빈약한 부모 감시가 높은 공격성과 관련되었다는 Colder 등(1997)의 연구, 그리고 불규칙성 기질 유형의 아동에게는 단호한 훈육방식이 아동의 적은 문제행동과 상관이 되었다는 이미애(1995)의 연구들 모두 부정적 기질 특성의 아동에게 부모의 통제적 행동이 아동의 적응에 도움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남아와 3학년의 경우에 역시 같은 결과를 얻고 있었다.

어머니의 통제적 행동은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며, 본 연구에서도 통제적 행동이 높은 어머니의 아동이 신체적 능력을 제외한 모든 자기-유능감을 낮게 지각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민함이 높은 남아와 3학년 아동은 어머니의 높은 통제가 높은 인지능력 지각과 관련되었다. 이는 예민한 남아와 3학년 아동에게는 어머니의 통제가 아동의 적응을 돕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민한 남아와 3학년 아동에게 어머니의 통제가 적응을 돕는데 비해 예민한 여아와 예민한 6학년 아동에게는 어머니의 통

제가 아동의 인지능력 지각에 어떠한 차이도 가져오지 않았다. 아동 초기 뿐 아니라 중기에도 부모가 예전보다 높은 통제를 할 때 두려워하는 아동의 수줍음을 낮추어 적응을 돕는다는 Kagan(1997)의 보고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6학년 아동의 경우에는 3학년의 경우와 달리 어머니의 통제적 행동이 예민한 아동의 적응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아동의 수줍음과 인지적 능력지각에서의 차이인지 아니면 문화적 차이인지를 추후 연구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 결과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기질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 조건모형의 가정을 일부 지지하고 일부는 지지하지 못하였다. 부정적 기질이 부정적 양육행동에 취약하다는 가정은 지지하지 못하였으나 부정적 양육이라 하더라도 기질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가정은 지지하였다. 어머니의 부정적인 통제적 행동이 예민한 남아와 3학년 아동의 인지능력 지각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본 연구 결과가 그러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그리고 아동의 발달과의 관계를 규명함에 있어 특히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었다.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조화를 이루는 정도에 따라 아동의 발달이 달라진다는 조화로운 합치모델 관점과 양육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아동의 기질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조건모형의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들이 있으며, 본 연구는 조건모형에 근거하여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상호작용을 파악하려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조건모형의 일부는 지지하고 일부는 지지하지 못하는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아동

의 기질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이 아동 발달에 다른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 결과는 아동의 특성에 따라 아동에게 도움이 되는 양육행동이 다름을 알려주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실제 상황에서 부모에게 효율적인 아동 지도 방법에 대해 교육할 때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기질과 양육행동, 그리고 자기-유능감 도구 모두를 아동이 평정하여 동일인 평정으로 인한 과잉 상관이나 왔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어머니가 평정하거나 혹은 관찰 방법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아동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었음이다. 또한 연구대상 표집이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진 만큼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주의를 요한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그리고 아동 발달과의 관계 규명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 참 고 문 헌

- 고병채(1991). 자아개념, 귀인성향,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간의 상호작용 및 그 변인들이 학업 성적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형식 · 박영애 · 박인전 · 양점도 · 윤종희 · 이소희 · 이항재 · 최영희(2000).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형설출판사.
- 김경연(1987). 부모의 자아평가 · 자아존중 ·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민 · 윤진(1992). 청소년기 기질 적합성이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5, 55-72.
- 김준희(1997). 아동의 정서이해 · 기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은실(2002). 유아의 기질 유형과 조망수용능력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순환(1991).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애(1995). 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태도의 부조화가 아동에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희(1990).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연희(2000). 학령전 아동의 기질, 부모의 훈육방식 및 문제행동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희(1990). 아동의 기질이 모-자 상호작용과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1993). 기질과 환경 간의 “조화로운 합치” 모델 검증연구(I) : 조화로운 합치정도와 양육태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2), 217-226.
- \_\_\_\_\_(1994). 기질과 환경 간의 조화로운 합치모델 검증연구(II) : 조화로운 합치와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 *아동학회지*, 15(1), 145-157.
- \_\_\_\_\_(1997). 아동기의 까다로운 기질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99-109.
- Bates, J. E., Pettit, G. S., Dodge, K. A., & Ridge, B. (1998). Interaction of temperamental resistance to control and restrictive parenting in the development of externalizing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34, 982-995.
- Belsky, J.(1997). Variation in susceptibility to environmental influence : An evolutionary argument. *Psychological Inquiry*, 8(3), 230-235.
- Blackson, T. C., Tarter, R. E., & Mezzich, A. C. (1996). Interaction between childhood temperament and parental discipline practices on behavioral adjustment in preadolescent sons of substance abuse and normal fathers. *American Journal of*

- Drug and Alcohol Abuse*, 22, 335-348.
- Bronfenbrenner, U., & Morris, P.(1998). The ecology of developmental processes. In W. Damon(series ed.), & R. M. Lerner(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Vol. 1. Theoretical model of human development(5th ed., Vol.1)*, 993-1028. NY : Wiley.
- Buss, A. H., & Plomin, R.(1984). *Temperament :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 Erlbaum.
- Caspi, A., & Silva, P. A.(1995). Temperamental qualities at age three predict personality traits in young adulthood : Longitudinal evidence from birth cohort. *Child Development*, 66, 486-498.
- Clark, L. A., Kochanska, G., & Ready, R.(2000). Mothers' personality and its interaction with child temperament as predictor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274-285.
- Colder, C. R., Lockman, J. E., & Wells, K. C.(1997). The moderating effects of children's fear and activity level on relations between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hood symptomatolog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5, 251-263.
- Collins, W. A., Maccoby, E. E., Steinberg, L., Hetherington, E. M., & Bornstein, M.(2000). Contemporary research on parenting : The case for nature and nurture. *American Psychologist*, 52, 218-232.
- Fowles, D. C., & Kochanska, G.(2000). Temperament as a moderator of pathways to conscience in children : The contribution of electrodermal activity. *Psychophysiology*, 37, 788-795.
- Gallagher, K. C.(2002). Does child temperament moderate the influence of parenting on adjustment? *Developmental Review*, 22, 623-643.
- González, C., Fuentes, L. J., Carranza, J. A., & Estévez, A. F.(2001). Temperament and attention in the self-regulation of 7-year-old childr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 931-946.
- Guerin, D. W., Gottfried, A. W., Oliver, P. H., & Thomas, C. G.(1994). Temperament and school functioning during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4, 200-225.
-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Hegvik, R. L., McDevitt, S. C., & Carey, W. B.(1982). The middle childhood temperament questionnaire. *Journal of Developmental and Behavioral Pediatrics*, 3, 197-200.
- Kagan, J.(1997). Temperament and reactions to unfamiliarity. *Child Development*, 68, 139-143.
- Katainen, S., Räikkönen, K., Keskivaara, P., & Keltikangas-Järvinen, L.(1998). Maternal child-rearing attitude and role satisfaction and children's temperament as antecedents of adolescent depressive tendencies : Follow-up study of 6- to 15-year-old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 139-163.
- Lee, C. L., & Bates, J. E.(1985). Mother-child interaction at age two years and perceived difficult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56, 1314-1325.
- Lerner, J. V., Lerner, R. M., & Zabski, S.(1985). Temperament and elementary school children's actual and rated academic performance : A test of a 'goodness-of-fit' model.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6, 125-136.
- Maccoby, E. M.(1980). Child rearing practices and their effects. In J. Kagan(ed.), *Social development : Psychological growth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367-410. New York : Harcourt Brace Jovanovich.
- Martin, R. P., Nagle, R., & Paget, K.(1983). Relationships between temperament and classroom behavior, teacher attitude, and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1, 377-386.
- McClowry, S. G.(2002). The temperament profiles of

- school-age children.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17, 3-10.
- Park, S-Y, Belsky, J., Putnam, S., & Crnic, K.(1997). Infant emotionality, parenting, and 3-year inhibition : Exploring stability and lawful discontinuity in a male sample. *Developmental Psychology*, 33, 218-227.
- Rothbart, M. K., & Bates, J. E.(1998). Temperament. In N. Eisenberg(ed.),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Vol. 3*, 105-176. New York : Wiley.
- Sanson, A., & Rothbart, M. K.(1995). Child temperament and parenting. In M. Bornstein(ed.), *Applied and practical parenting Vol. 4*, 299-321. Mahwah, NJ : Erlbaum.
- Sroufe, L. A.(1985). Attachment classifi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fant-caregiver relationships and infant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56, 1-14.
- Thomas, A., Chess, S., & Birch, H. G.(1968). *Temperament and behavior disorders in children*. NY : New York University Press.
- Thomas, A., & Chess, S.(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Y : Brunner/Mazel.
- Vandell, D. L. (2000). Parents, peer groups, and other socializing influences. *Developmental Psychology*, 36, 699-710.
- Windle, M., Hooker, K., Lenez, K., East, P. L., Lerner, J. V., & Lerner, R. M.(1986). Temperament, perceived competence, and depression in early and late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384-392.
- Windle, M., & Lerner, R. M.(1986). The "goodness-of-fit" model of temperament-context relations : Interaction or correlation? In J. V. Lerner & R. M. Lerner(eds.), *Temperament and social interaction in infants and children*, 109-119. San Francisco : Jossey-Bass.

---

2004년 4월 30일 투고 : 2004년 5월 17일 채택